

2010. 1
January

| 광 | 학 | 단 | 신 |

광학신상품

**한국후지제록스(주)
친환경 A3 컬러복합기 8종 출시**



▶ 모델이 후지제록스의 친환경 컬러복합기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는 지난 12월 1일 새로운 디자인에 친환경, 비용절감의 장점을 갖춘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 8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아페오스포트-IV C5570/C4470/C3370/C2270' 과 '도큐 센터-IV C5570/C4470/C3370/C2270'로 빠른 출력속도와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에 LED(발광 다이오드) 프린트 헤드 기술을 적용해 전력 소비를 기존 모델 대비 70%까지 줄였다. 또한 토너가 용지에 정착되는 온도가 기존 토너 대비 20도 이상 낮은 EA-에코 토너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며 친환경성을 한층 높였다. 이 외에도 새로 개발된 초기 예열 기술인 IH(Induction Heating) 퓨저를 탑재해 절전 모드에서 출력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3초로 단축시켰으며, 절전모

드시 전력 소비를 기존 모델 대비 최대 75%까지 절감했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친환경성과 함께 보안, 비용절감 등 다양한 솔루션 구현이 가능한 이번 신제품을 통해 솔루션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린 오피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출시와 더불어 2010년 초에 컬러 복합기 라인업을 강화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A3 컬러 복합기 시장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정회원(3개 사)

건영라벨

- 대표 : 이상훈
- 전화 : (053)958-1272
- 팩스 : (053)958-1271
- 주소 : 대구시 북구 서변동 889번지
- 홈페이지 : www.kycloth.com
- 주요 품목 : Micro-fiber lens cleaning cloth(초극세사 광학렌즈 클리너)

테크룩스(주)

- 대표 : 남기호
- 전화 : (02)2699-7088
- 팩스 : (02)2696-7089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899-7 남흥빌딩 3층
- 홈페이지 : www.teklux.co.kr
- 주요 품목 : LED Lighting

한국토키나

- 대표 : 박청원
- 전화 : (055)587-0800
- 팩스 : (055)587-2333
- 주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281-7
- 홈페이지 : http://tokina.co.kr
- 주요 품목 : DSLR용 교환렌즈, CCTV용 렌즈 외

(주)뷰웍스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장비 수출 계약

뷰웍스(대표·김후식)는 중국에 27억3635만원 규모의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장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삼양옵틱스

미국 라파젠과 지분 인수 협약

삼양옵틱스(대표·정문영)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라파젠사와 지분 인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양옵틱스는 향후 라파젠 핵심보유 기술의 국내 판권을 취득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라파젠은 유전자 조절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약품의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회사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유전자 발현 조절기술은 차세대 유전자 치료의 핵심기술”이라며 “라파젠 보유기술은 세포주 선별을 용이하게 하면서 의약품 생산성 제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국내외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세포주 개발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삼양옵틱스

미국 신종플루 진단키트 판매권 획득

삼양옵틱스(대표·정문영)는 신종플루 진단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가를 취득한 미국 포커스 디아스노스틱(Focus Diagnostic)사의 신종플루 진단 키트 등의 국내 판매 독점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될 진단 키트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 time-PCR)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진단 키트는 간단한 시약의 교체만으로도

변종 인플루엔자나 혼합 조류독감(AI) 및 계절 독감 등의 유행성 전염병 진단도 가능하다.

삼양옵틱스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수입허가 신청을 통해 1월중에 국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을 국내 32개 주요 거점 병원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고 진단 센터 및 병·의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현재 신종플루 1회 진단료가 약 12~15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제품의 1대당 처리 용량이 약 10만건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함께 사용되는 시약도 삼양옵틱스가 독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당한 매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신도리코

고객서비스 부문 정도경영 대상 수상



▶ 신도리코가 정도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도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대한민국 정도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국내에 복사기를 처음 소개한 신도리코는 1960년 창립 이래 사무기기 사업분야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높이며 약 50년 동안 국내 시장 1위를 꾸준히 지켜왔고 매출의 70% 이상, 연간 약 5000억원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면모에서 정도경영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2000여명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해 온 기업의 교육 시스템과 고객지향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크게 인정받아 고객서비스 부

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도경영 대상은 투명한 기업경영과 철저한 윤리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수상이다.

(주)신도리코

적십자사와 헌혈약정 체결



▶ 신도리코는 지난 1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약정식을 가졌다.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사랑나눔 헌혈운동’에 나섰다. 신도리코는 지난 1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약정식을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약정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리코는 헌혈 약정과 함께 표희선 사장을 비롯해 서울 본사 직원 7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 직원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헌혈에 참여한 표희선 신도리코 사장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피를 나누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며, 신도리코의 기업정신인 나라사랑, 직장사랑, 사람사랑의 ‘삼애정신(三愛精神)’에도 부합된다”며 “앞으로도 헌혈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자랑스런 삼성인상' 8명 수상자 선정



▶ 삼성은 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올해 임직원의 귀감이 된 8명을 선정하고 '2009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삼성에는 올해 임직원의 귀감이 된 8명을 '2009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삼성은 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계열사 사장단, 임원진, 수상자 가족, 회사 동료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술상과 디자인상, 공적상, 특별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다. 기술상은 고화질의 초슬림 발광다이오드(LED) TV를 개발한 안윤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수석과 고해상도(VGA급)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제품 개발 및 양산을 실현한 김성철 삼성모바일디스플

레이 연구위원(상무) 등 2명이 수상했다. 디자인상은 블루레이 플레이어 디자인 개발을 주도한 김재형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디자인그룹 책임이 수상했다. 공적상은 프랑스 휴대폰 사업 진출 초기부터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필립 바틀레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영업담당(현지법인 임원), 북미 컬러 TV 시장 1위 달성에 기여한 한명섭 삼성전자 상무(멕시코 생산법인장)와 이람(Hiram) 제조팀장(현지법인 부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업계 최고 수준의 제조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이정수 삼성전기 수석 등 4명이 수상했다. 특별상은 인천대교를 완벽하게 시공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천대교 프로젝트' 김화수 상무 외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에게는 1직급 특별승격과 함께 5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재직중 2회 이상 수상자로 선발될 경우 '삼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삼성 그룹 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삼성전자(주)

삼성 모바일 1호점 영풍문고 종로본점 오픈



▶ 최근 영풍문고 종로본점에 오픈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의 체험형 모바일 전문매장인 '삼성 모바일' 1호점 매장 전경

삼성전자는 디지털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층을 위해 핸드폰과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MP3 등 최첨단 IT 모바일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IT 모바일 전문 매장 '삼성 모바일' 1호점을 지난 11월 27일 영풍문고 종로본점 내에 오픈했다. '삼성 모바일'은 기존 가전제품 매장과 달리 유행에 민감하고 최첨단 기술에 관심이 높은 20~30대 고객들을 위한 곳이다. '스마일 & 모바일(SMILE & MOBILE)'이라는 슬로

건처럼 삼성 모바일에서는 애니콜과 삼성 센스, 삼성 블루, 삼성 엠 등 삼성전자만의 독창적인 IT 모바일 제품들을 가장 먼저 체험해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IT 모바일 제품뿐만 아니라 교육, 게임과 같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와 다양한 관련 액세서리까지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직접 보고 만지며, 제품 구매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매장을 실현했다.

세기P&C(주)

서울소년원에서 '2009 고봉페스티벌' 진행



▶ 세기P&C 주최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 '2009 고봉페스티벌' 행사 광경

세기P&C(대표·이봉훈)는 최근 서울소년원에서 학생들의 창작공연과 직원들의 봉사, 외부 후원업체가 하나되는 '2009 고봉페스티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위해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학생들은 그 동안 호실 별로 연극, 노래, 악기연주, 춤, 개그 등을 준비해 왔고, 직원들은 연습활동 지원과 행사 진행을 도왔다. 또한 법무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세기P&C 이봉훈 대표가 행사를 후원했다. 뜻 깊고 즐거운 행사로 이어진 이날, 학생들이 준비한 장기 자랑에는 꿈과 희망, 도전의지, 참여의식, 관객들의 반응과 호감도를 평가하여 원장상, 세기P&C상, 소년보호위원상을 수여했고, 학생들 모두 화합하는 자리로 유도하여 행사의 취지를 살렸다. 특히 이봉훈 대표

의 배식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서울소년원 관계자는 “계속적인 세기P&C의 후원으로 소년원의 사진반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런 좋은 행사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후원업체와 함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놓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봉훈 대표는 수년 전부터 청소년 선도, 교육에 깊은 관심과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AM OLED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박희재)은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와 34억 원 상당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비는 AM OLED 제조 공정의 핵심인 증착(EVAPORATION)·봉지(ENCAPSULATION) 공정 중 봉지에 사용되는 장비로, 기존 방식을 혁신한 새로운 장비다. 기존 방식이 증착을 끝낸 유리 위에 새로운 유리를 덮는(글래스 인캡) 공정이었던 데 반해, 이 장비는 유리가 아닌 박막을 이용해 봉지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이 단순한 것은 물론 재료비를 줄이고 패널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스엔유프리시전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장비는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수의 기업과 연구기관에 먼저 연구개발용으로 공급, 기술을 검증받았다”며 “AM OLED 공정의 핵심적인 혁신 장비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시동’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박희재)이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은 지난 12월 14일 지식경제부 주관 ‘반도체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음을 공시했다.

이번 사업은 3년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아 반도체 집적도와 반도체 생산의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D(CRITICAL DIMENSION: 임계치수) 값을 인라인 공정 중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외산 장비 업체가 100% 점유한 반도체 측정장비의 국산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에스엔유프리시전 관계자는 “관련 핵심 기술과 부품 국산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으며,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 등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LCD, OLED, 태양광 장비사업과 더불어 반도체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은 전 세계 LCD 검사 및 측정장비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미국 나노메트릭으로부터 반도체 측정 및 검사장비 분야의 원천 특허를 양수한 바 있다.

(주)이오시스템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서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이오시스템(대표·이원승)이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오시스템의 이동하 사장은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을 통해 얻은 기술로 현재 해외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을 국내의 민수 제품에도 적용하여 수

입대체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은 지난 한 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앞장 선 현대제철과 넥스켈이 받았다.

(주)차바이오&디오스텍

김영준 상무, 2009 산업기술진흥유공자상 수상



▶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는 김영준 상무(왼쪽)

차바이오&디오스텍(대표·박일, 문병우)의 김영준 상무이사가 지난 12월 15일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기술진흥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영준 상무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폰카메라 모듈 개발 기획을 시작으로 plastic 재질만을 적용한 폰카메라 및 PC camera용 렌즈 개발 및 양산하여 ‘2001년 정밀기기진흥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00년부터 국내최초 폰카메라 모듈용 COB(Chip On Board) pack aging과 MCP(Multi Chip Packaging) 기술 개발 및 양산을 적용했다. 2003년 이후에는 메가급 고화소 렌즈 개발 및 양산을 총괄했고, 2006년 이후에 자동초점

렌즈 모듈을 기획, 개발 및 사업화를 실현했다. 특히 세계 최초 렌즈 일체형 VCM 방식 자동초점 렌즈 개발을 했고 폰카메라 모듈 관련 발명자로서 특허가 국내 23건 해외 3건이 등록되어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교원나라와 '학교장터' MOU 체결**



▶ 한국후지제록스와 교원나라가 지난 12월 3일 '학교장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후지제록스와 교원나라가 '학교장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에 따르면, 문서관리 컨설팅 기업 한국후지제록스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기업이 지난 12월 3일 교육기관 맞춤형 전자계약 지원시스템 '학교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서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투명하고 열린 전자 상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교육시장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후지제록스는 교육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학인포메이션

46개 품목 관세율 인하... 유리제 광학용품 등은 제외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생필품·원자재

광학이벤트

**한국광학회, 창립 20주년 기념-2010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 1월 20일~22일, 대전 KAIST에서 열려 -**

한국광학회(회장 · 이범구)가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정기총회 및 2010년도 동계학술발표회를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덕 과학단지 소재 KAIST 창의학습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국내외 학회장, 석학들을 초청하여 9개의 기념 워크숍과 총회 및 분과 초청강연이 계획되어 있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술발표회 기간동안 광산업전시회인 'OptoWin 2010' 도 열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소개뿐 아니라 산학협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운용하던 할당관세 규정은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1년 단위로 운영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폐회로기관,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 걸보리(사료용), 면실박(사료용), 동식물성유지(사료용) 등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5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했다. 그러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내화재원

료), 탄화규소(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펠프면실피(사료용) 등 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올해 R&D투자액 13조6000억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본격화

교육과학기술부가 R&D 선진화를 위해 2012년까지 민간과 정부 부문의 국가 R&D 총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R&D 투자액은 올해 1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최고 두뇌가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올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를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R&D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에 맞춰 '국가 차원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기술) 마스터 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우주를 향한 도전도 지속된다. 우주 기술에 IT·NT 등 우리 강점 기술을 접목해 우주 카메라, 우주 컴퓨터 등 우주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광학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로호(KSLV-I) 1차 발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에도 착수한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중소형 원자로(SMART) 개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은 반도체·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에 맞춰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 원자로 SMART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11년까지 개발해 수출을 추진하고, 개발과 병행해 카자흐스탄 등 관심 국가와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 협의를 본격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 상생에 1730억 지원

새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프

로그램이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지식경제부 상생협력 시행 기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불명확한 경제 전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새해 상생협력사업에 총 173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1727억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다른 산업 분야 새해 예산이 대체적으로 준 것에 비하면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부문별로는 부품소재의 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품소재 공동 기술 개발에 11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 이어 대·중소 공동 연구개발(R&D)에 290억원, 상생 IT 혁신사업에 30억원, 그린파트너십에 24억원이 지원된다. 수출 지원 상생 프로그램에 12억원을 지원하고 부품 신뢰성 및 품질 혁신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지식경제부, 출연연 연구원 중소기업에 150억 투입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에 장기 파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210억원을 투입해 출연연의 고급 기술인력을 최소 3년 이상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할 지원단을 꾸리기로 하고,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준비에 들어갔다.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11곳에서 각각 2명씩 총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기술연구회는 출연연에 이미 인력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 예산에 정부는 15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60억원을 인건비 형태로 부담하도록 했다. 파견 인력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내지만 기업도 30% 정도 내야

한다는 의미다. 11개 출연연은 기존 연구직과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에 파견돼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할 파견연구직군을 신설할 방침이다. 파견연구원 대우도 파격적이다.

기술표준원, 34개 신기술 NET 인증서 수여

고효율빌딩에어컨 압축기용 BLDC 모터 설계와 무센서 운전기술과 전기철도의 제동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34개 기술이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새로 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34개의 새로운 기술을 선정해 신기술(NET) 인증서 수여식을 지난 12월 23일 개최했다.

LG전자가 개발한 고효율 빌딩에어컨 압축기용 BLDC 모터 설계와 무센서 운전기술은 고속·저소음 구조의 고속 정밀 운전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빌딩용 시스템 에어컨 최적화와 고속·고효율 운전이 가능하게 했다. 이 기술은 향후 5년간 75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2014년까지 해외시장 점유율 16% 등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진산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철도 제동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기술은 전동차 정차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압을 안정화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전기자전거와 풍력발전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전동차 사용 에너지의 최대 평균 25%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10년간 국내 도시철도 전력비용 2120억원과 온실가스 배출량 467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그간 신청 접수된 122개 기술을 3차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신기술 인증 예정 기술로 공고한 바 있다.